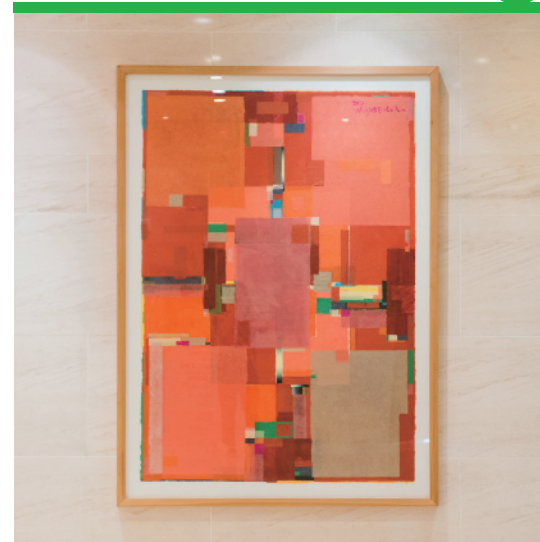


우제길 (한국)



Light 2009-A, 2009, Acrylic on Canvas, 454.6 x 181cm



Light 2010-C, 2010, Collage on Panel, 200x138cm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우제길 작가는 40년 넘게 '빛'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작업해온 현대 추상미술의 대가이다. 유년 시절 시냇가 언덕 위에서 형들이 쫓던 반짝이는 반딧불이의 빛에 매료된 그는 어둠을 꿰뚫는 날카롭고 차가운 것이 아닌 따뜻한 빛을 작품에 담아낸다.

Light 2009-A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그의 이력답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인류의 꿈과 희망을 안은 환한 빛이 우주를 향해 끝없이 높게 피어오르는 울동감을 표현했다.

작가가 한지의 순박한 색감과 질감에 매료되어 새로운 작업 방식을 시도한 Light 2010-C는 색 한지를 판넬 위에 얹어, 넓은 면들과 다른 면들의 화면 구성을 이뤄 한지가 갖는 따스함과 다양함,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표현했다.

데이비드 호크니 (영국)



Seven Trolleys, Six and a Half Stools, Six Portraits, Eleven Paintings, and Two Curtains, 2018
Photographic Drawing Printed on Paper, Mounted on Dibond, 83.2x228cm, Edition 19/25

Focus Moving, 2018, Photographic Drawing Printed on Paper, Mounted on Dibond
170.2x217.8cm, Edition 18/25

데이비드 호크니는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1960년대 팝아트 흐름에 주요한 기여를 한 예술가로 공예, 판화, 무대 디자인, 사진, 그리고 21세기 현재는 아이패드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창의적 잠재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2014년 이후 새로운 기법으로 3차원 현실 세계와 2차원 성의 회화를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재구성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작품 속에서 벽면을 가득 채운 작가의 풍경화, 초상화 작품들 그리고 작업실에서 쓰이는 트롤리, 스툴, 커튼 등 다양한

소재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작가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후 디지털로 이미지를 결합, 재배치하여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킨 것으로, 독특한 원근법과 구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작가의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접근 방식이 돋보이는 포토그래픽 드로잉 작품은 사진의 고정된 관점이 아닌 다중 관점을 사용하여 회화적 시각을 재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휴먼스 신스 1982 (스웨덴, 독일)



A Million Times 120, 2020, White Coiran and Electronic Components,
208x117x6cm, Edition 14/82

A Million Times 120은 스웨덴의 HDK Göteborg에서 독일 출신 Bastian Bischoff와 스웨덴 출신 Per Emanuelsson 1982년 동갑내기 두 사람이 만나 2009년 설립한 휴먼스 신스 1982의 대표 작품이다. 휴먼스 신스 1982는 스웨덴 스톡홀름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으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및 기술자를 포함한 다국적 전문가의 협업을 통하여 시계, 스마트폰 등 일상적인 물체를 통한 시각적인 유희 및 작업을 추구한다. A Million Times 120은 가장 평범한 아날로그와 가장 최신의 디지털이 융합된 모습으로 120개의 시계로 이루어져 각 1분마다 로테이션하며 20개의 패턴을 구현한다.

그들의 작품은 Saatchi Gallery, Dillion+Lee, Art Miami, Cooper Hewitt, Verbeke Foundation, Phillips de Pury & Company 등 권위 있는 여러 갤러리, 박람회, 기관에서 소장 및 전시하고 있다.

최규철 (한국)



호남 조각계의 거장 김대길 작가가 하늘을 날아가는 꼬리 달린 풍선을 통해 축제와 소풍의 즐거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호텔 외에도 전남대, 광주은행 본점, 광주시립미술관 등의 지역 주요 시설과 삼성 태평로 사옥 등에서 그의 주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도시의 창, 2010, Stainless, Steel, Urethane(Coating), 150x130x310cm

김대길 (한국)



광주지역 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대길 작가는 기하학 도형인 점, 선, 면과 전통적인 창을 도입해 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현대적 단순미와 조형미를 통해 재료의 특성을 극대화하여 거울에 투영되는 듯한 수퍼 미러(SuperMirror)의 효과를 살려 도시 풍경을 탐색하고 붉은색의 이미지로 밝고 화려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축제, 2009, Stainless, Steel, 250x250x800cm

07 휴먼스 신스 1982 | 09 최규철 | 10 김대길

ART IN VOYAGE

H Holiday Inn®
AN IHG HOTEL
GWA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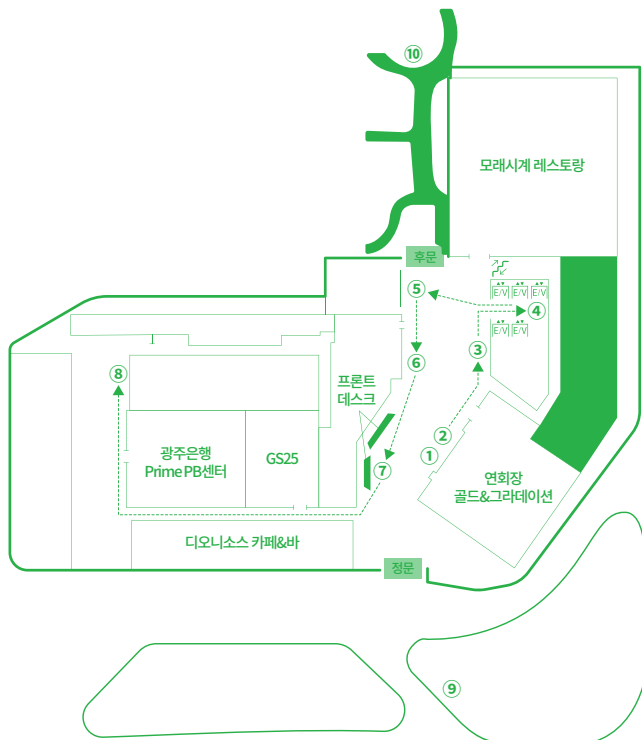
Welcome

문화수도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세계적인 빅네임 작가들의 작품
부터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까지
미술관급 아트 컬렉션을 감상하며 영감(Inspiration) 가득한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미국의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 ‘로버트 인디애나’, 키네틱아트 작가 ‘휴먼신스 1982’, 빌
게이츠가 구매해 화제가 된 ‘최영욱’ 작가, 전통한지를 이용해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전광영’ 작가, 광주를
대표하는 ‘우제길’ 작가, ‘김대길’ 작가, ‘최규철’ 작가 등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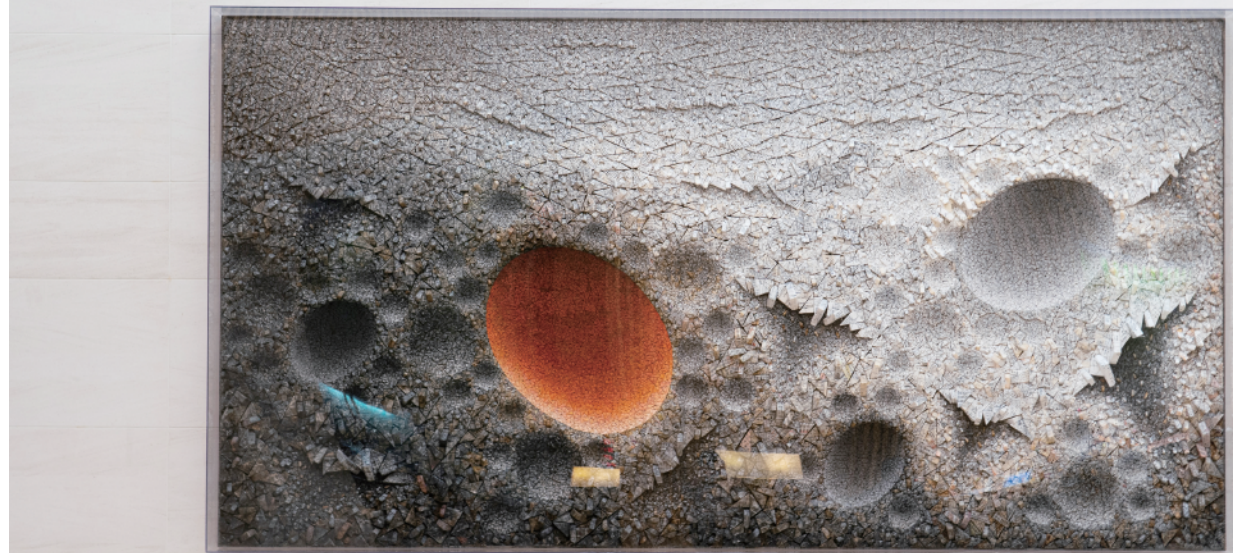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총지배인



- ① 전광영 집합10-OC034RED, 2010,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212x402cm
- ② 로버트 인디애나 HOPE (RED/SILVER), 2009 Fabricated in 2010, Fabricated, Painted Aluminum, 45.7x45.7x22.9cm, Edition 5/9
- ③ 전광영 집합(Blue), 2017,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188x160cm
집합(Gold), 2017,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190x158cm
- ④ 최영욱 KARMA, 2016, Mixed Media on Canvas, 165x150cm
- ⑤ 우제길 Light 2010-C, 2010, Collage on Panel, 200x138cm
- ⑥ 데이비드 호크니 Seven Trolleys, Six and a Half Stools, Six Portraits, Eleven Paintings, and Two Curtains, 2018 Photographic Drawing Printed on Paper, Mounted on Dibond, 83.2x28cm, Edition 19/25
Focus Moving, 2018, Photographic Drawing Printed on Paper, Mounted on Dibond, 170.2x217.8cm, Edition 18/25
A Million Times 120, 2020, White Coiran and Electronic Components, 208x117x6cm, Edition 14/82
- ⑦ 휴먼신스 1982 A Million Times 120, 2020, White Coiran and Electronic Components, 208x117x6cm, Edition 14/82
- ⑧ 우제길 Light 2009-A, 2009, Acrylic on Canvas, 454.6x181cm
- ⑨ 김대길 축제, 2009, Stainless, Steel, 250x250x800cm
- ⑩ 최규철 도시의 창, 2010, Stainless, Steel, Urethane(Coating), 150x130x3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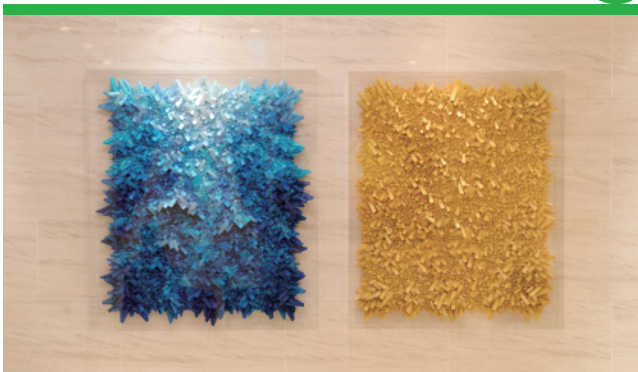
작가정보

전광영 (한국)



집합10-OC034RED, 2010,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212x402cm

활발한 국제적인 예술활동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독창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전광영 작가는 '집합'이라는 연작을 만들어 내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작가는 평면의 나무 프레임 안에 한지로 싼 수천 개의 삼각형 스티로폼을 한지로 꼬아 만든 끈으로 묶어 집결시킴으로써 회화적이면서도 부조같은 작품을 만들어낸다. 작가의 최근 작품은 각기 다른 크기와 다른 명암의 삼각형 쉘들이 집합되면서 사각 평면 안에서의 불규칙적 움직임이 이룸으로써 규칙적인 틀의 파괴를 표현하고 있다. 전광영 작품의 기본적 개념은 한국의 문화적 정서뿐만 아니라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한지 종이봉투에 얹힌 그의 향수 어린 기억이 오늘날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고루 갖춘 작품으로 승화된 것이다.



집합(Blue), 2017,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188x160cm
집합(Gold), 2017, Mixed Media with Korean Mulberry Paper, 190x158cm

1

01/03 전광영

로버트 인디애나 (미국)



HOPE (RED/SILVER), 2009 Fabricated in 2010, Fabricated, Painted Aluminum, 45.7x45.7x22.9cm, Edition 5/9

로버트 인디애나는 예술에 그래픽과 디자인적 요소를 도입하여 삶과 예술의 간격을 좁히고 일상적인 환경을 예술화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작가는 <HOPE>, <LOVE>와 같이 단순하고 상징적인 문자나 숫자 및 기호를 과감한 색채로 표현해 팝아트 장르가 메시지를 얼마나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시각적이며 언어적이고, 개인적이며 대중적이고, 의식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과 깊은 의미를 남긴다. 그중 작가의 대표작인 <HOPE>는 말의 시각화(Verbal-Visual)로 지칭되는 그의 문학적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동시대 팝아티스트들과는 다르게 미국적 정체성, 작가 본인의 기억, 추상적 개념, 그리고 언어의 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다른 팝아트 작가들과 차별점을 갖고 있다.

2

최영욱 (한국)



KARMA, 2016, Mixed Media on Canvas, 165x150cm

스페인 왕실, 빌 게이츠 재단, 필라델피아 뮤지엄 등 왕실·다양한 재단 및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최영욱 작가에게 달항아리는 일종의 오마주이다. 오마주는 달항아리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달항아리에 내재하는 한국 특유의 심미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투박해 보이지만 극도의 세련됨을 가지고 있는 외면과 침묵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중첩의 미학을 지닌 달항아리처럼 살고 싶은 작가의 이야기를 달항아리라는 소재로 풀어낸다. 달항아리 표면의 갈라짐은 그에게 있어 인생의 축소판이다. 각각의 선들은 살아가며 선택하는 인생의 길처럼 보인다.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며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만나서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큰 흐름을 자아낸다. 달항아리 유약의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작품 속 선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느낀 희로애락이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다. 또한 세월을 지나면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인생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4

02 로버트 인디애나 | 04 최영욱

홀리데이 인 광주

광주문화예술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예술가와 소통하는 커뮤니티형 플랫폼입니다.

https://dmgj.kr

앱스토어에서 '디어마이광주' 검색



홀리데이 인 광주 × 디어마이광주

EVENT

(~ 2022.12.31)



호텔 내 전시된 작품 사진 촬영



필수 태그를 포함해
'디어마이광주' 커뮤니티에 게시

#홀리데이인광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게시글 제시하고
웰컴 드링크 쿠폰 및
디어마이광주 굿즈 수령

*1인 1회 참여 가능,
디어마이광주 굿즈는 소진 시 제공 불가

Holiday Inn
AN IHG HOTEL
GWANGJU

f /higwangju
@holidayinn_gwangju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로55

T. (82) 62 610 7000

E. res@higwangju.com

W. higwangju.com